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The Counterpla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Architectural Design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과정을 중심으로—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 있어서 개방화, 국제화의 큰 파고 속에 우리 건축설계 사무소의 업무를 외국업체에 잠식 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를 계기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전환기회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知彼知己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좌담회에서는 외국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주소를 뒤돌아 보고 외국업체와의 업무범위, 설계과정, 단계별 설계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특별업무(단지계획, 음향, 자문)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일시/1994년 10월 17일(월) 14:00~
- 장소/본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이복(예문건축, 사회)
강석원(그룹가건축)
방한영(금호그룹 종합설계실)
윤병완(예일건축)
전태진(예청건축)
최찬환(서울시립대교수)



이 복

사회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좌담회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건축설계사무소가 앞으로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바,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주소를 뒤돌아보고 외국업체와의 업무범위, 설계과정, 단계별 설계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특별업무(단지계획, 음향, 자문)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알찬 토론을 기대하며, 우선 외국업체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업체의 건축설계과정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전태진 : 얼마전까지만 해도 설계과정은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단계로 세분적으로 나누어지다가 최근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단계로

나누어지는 추세이다. 예를들면 최근 미국의 경우 Schematic Design Phase 15%, Design Development Phase 20%, Construction Document Phase 40%, Bidding or Negotiation Phase 5%, Construction Phase 20%로 공정이 대체로 정해지고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작업량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이 공정이 조절되고 있다. 각 Phase가 끝나면 건축주의 승인을 받게되며, 이 기간은 2주에서 4주가 소요되고, 이에따라 설계비를 청구하게 된다. 만약 건축주의 승인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축주의 책임으로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강 석 원

사회 : 각 Phase가 끝날때마다 승인이 성립되어진다는 것인가요?

전태진 :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각 Phase마다 건축주와 구두로 이루어지고 외국의 경우 각 단계별마다 명확히 계약이 성립되어진다. 또한 건축주는 설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결정된 사항에 순수히 응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점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축사들은 건축주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과 성실성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 외국에서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택할 때 문제는 없는가?

전태진 : 미국의 경우 건축사를 선정할 때 건축주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방한영 : 건축주가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대개 건축주가 사내 또는 외부 자문을 통해 발주될 건물설계의 Program 및 예산책정 등 사전준비를 한후에 과거 경력, 평판 등에 의해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처럼 현상설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전문적인 개발회사나 큰 규모의 건물을 설계시공할 때에는 설계시점이전부터 Construction Manager를 기용하여 구조, 설비 등 주요 System 등을 건축사와 협의하여 전체 Budget 및 공기일정까지 건축주를 대리하여 관장하게 한다.

윤병완 : 일본의 경우 건축사의 보수체계나 수준은 현재 우리와 비슷하지만 설계경력별 분류에서는 건축사보는 포함하지 않는 등 인적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설계 과정별 분류에서도 조사연구과정, 전기 및 설비의 기본설계과정 등 좀 더 세분화 되어있는 정도이나 설계사무소의 규모나 체계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건축사 스스로 pride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UR에 대비해서 건축사 스스로 단결하여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니켄세케이 같은 경우 일급건축사만 600여명 이상 보유하고, 500명 이상 보유한 사무실도 10개가 넘는 정도이다.

사회 : 설계사무실의 규모가 모두 큰 형태를 띄고 있는가?

윤병완 : 우리와는 달리 종합건설업법 비슷한 제도가 있어 설계사무소, 주택전문메이커설계실, 건설회사 설계실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수주내용 및 업무상황 등이 비교적 자세히 공개되고 있다.

우수한 대학의 설계직 희망자의 70% 이상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안정된 직장으로 건설회사나 주택전문 회사의 설계실을 선호한다. 하지만 근래의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악화로 조직개편 등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 UR에 대해 일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윤병완 : 일본도 개방화나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미수준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최근 2년간 생활에서 UR에 대한 대책이나 보고는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설계부분에서 우리의 경우가 그동안 너무 패쇄적이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계에만 국한해 보아도 우리의 사정은 비교적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 보다도 외국의 종합건설 서비스가 자금과 합쳐져 노련한 영업 공세가 우리에게 들어 올 때 더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방 한영

빠른 시일내에 상호면허개방(Reciprocal Recognition)을 통하여 초기에는 협력체제로 장래에는 자유경쟁 체제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

방한영 :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다른분야에서도 UR에 대비하여 어떻게 우리의 사업에 침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오히려 빠른 시일내 상호면허개방(Reciprocal Recognition)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지금은 선진 유명건축사들이 우리의 중요한 건축설계를 전부 독식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겠지만 건축을 너무 몇가지 주목받는 Monument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보다는 초기에는 협력체제로 장래에는 자유경쟁에 의한 실력축적으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어적인 방법은 궁극적 결과를 지연하게 되는 수단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사람의 인적자원과 능력을 생각할 때 진정한 경쟁분위기에서는 오히려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 불란서의 경우 소규모사무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강석원 : 현재 UR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보다도 외국건축세계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불란서의 경우 건축대학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건축사가 됨으로 우리와는 숫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곳에서는 우리와 달리 건축사 면허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주지않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른점이다. 또한 업무분야에 있어서 우리와 많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사는 기본계획만 수행하면 되며, 시공설계와 상세도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일의 분담비율이 우리와 현저히 차이가 있고 질적인면에서 보다 전문적이다. 또한 건축사가 설계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작품만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외국업체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또한 외국같은 경우 건축사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쉽게 개업하지 않는 이유가 보험문제로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설계사무소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쌓은 후에 개업을 하게된다. 부실시공 원인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한편 허가에 있어서도 우리는 Owner와의 계약으로 설계, 감독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전기, 설비, 특수기술은 기술감리의 새로운 Section인 기술감리단을 통하여 건물허가신청시 Sign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현상설계에 응모하는 건축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응모케하고 있다. UR에 대처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유예기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방에 대비하여 사전에 Committee를 구성하여 확실한 Form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본다.

사회 :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책임분담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다.

최찬환 : 국내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몇가지 이야기 하겠다. 우선 우리 건축설계도서가 경쟁력을 갖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면표기 요령이나 형식에 있어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들면 마감방법, 지정색, 자기질타일이나 시방서에 이르기까지 통일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원인은 재료개발, 재료의 특수성, 재료자체의 고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단계의 일치가 급선무이다.

정부가 KS로 재료의 성능을 보증하고 있지만, 재료자체가 실제 설계작업에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과 디자인의 개발이 중요하다. 우수한 디자인의 개발은 설계자의 능력과 기술에 의존되었지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인력구조는 교육과도 연계되어진다. 현재 우리 건축사사무소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장비와 업계의 필요한 인력요구에 대한 대학교육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국제화에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한 이해타산적으로 설계사무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인력의 개편 작업을 건축 3단체(사협회, 학회, 가협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한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작년에 건축사 인력수급 현황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건축사에게 부여되는 수주량에 비해 보조원자체가 현실적으로 적게되는 기현상을 초래하여 전체적으로 도면의 생산성에서 뒤떨어진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보수요율을 똑같이 획일화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건축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호텔, 학교 등으로 전문화를 이루도록 설계업무에 대한 보험 보장제도도 준비해야 되며, 건축사가 인허가 등 부수적인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지 말고 설계본연의 업무인 디자인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방한영 : A. I. A(미국건축사협회)의 역할은 우리나라 건축사협회와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표준업무 Manual, 각종 Service 계약서류, 시공계약 등의 표준 Format 등을 공급하며, National Convension과 지부(Local Chapter)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Guide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처럼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한 Lobby 활동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AIA 설계계약 서류에는 건축인허가는 건축주의 책임이고 건축가는 필요한 도서작성을 제공하여 협조를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미국의 건축학위는 최근에는 모든 Major University에서는 6년의 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주므로써 Professional Degree로 인정하며, 4년 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Environmental Design학사 등의 명칭으로 전문학위로 인정치 않고 있다.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Professional Degree를 얻기까지는 대개 8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건축이 상당히 복잡적 지식이 요구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학외에도 법률, 사회, 경제, 심리학 등 많은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자면 4년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찬환 :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설계에 대한 보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방한영 : 우리나라에도 Professional Malpractice Insurance가 곧 도입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를 많이 낸 사람과 무사고 운전자와의 보험료를 차등하듯이 보험료가 설계사무소의 경력(Track Record), 업무내용(Types of Building 등), 업무량(설계가격 기준으로) 등에 의해 결정되고 처음 설계사무소를 개업하는 사람이나, 경력이 부족하거나,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징수되고 심할 경우에는 보험을 살 수가 없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보험 회사에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기도 한다.

사회 : 외국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본다면, 건축사를 전문화시키는 건축주가 된다. 그러면 표기방법의 표준화와 외국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국내 건축설계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강석원 : 우리나라는 도면작성시 건축자재나 공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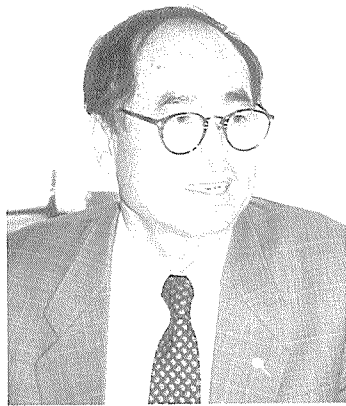
윤 병 완

우리 도면의 CAD화 수준은 낙후되어 있지 않다. 사무소별로 전문화하고 연구개발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

특정회사의 이름과 제품을 명기할 경우, 건축주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외국의 경우에는 정반대이다. 국내에서는 KS라는 품질표시가 있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며, 덴마크의 경우 오래전부터 건축사가 설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준비해 주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각 사무소마다 독특한 Style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 Number를 제외하고는 국제화하기 위해 표준화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전태진 : 우리 사무실에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되었으나 앞으로는 Detail Book(상세도)를 만들어 반복되어 사용되는 상세도를 모아서 도면의 참고번호로서 필요할 상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정리중에 있다. 미국의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찬환 : 건축사의 수요인력에 있어서 한쪽에서 고집하고 있는 타성이 문제이다.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제도권의 오랜관습을 배제해야 한다. 설계사무실에서 업무를 수주했을 때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비가 각각 다르다. 기본설계, 계획설계는 보수로 책정이 안되어 있으며, 객관적 자료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계적으로 어렵고 힘이드는 실제 작업에 따라 보수요율을 개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의 일정한 수급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전 태 진

**기본계획단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반복되는 과정을
최소화시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

방한영 : 최근 조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건축과를 졸업한 수에 비해 너무 적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설계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개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면허제도가 사법고시를 위시하여 최소인원을 합격 시킴으로서 사회발전의 속도를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40~50%는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행사로 건축사시험 기간중 인력고같이 생기는 문제 등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면허는 특권이 아니고 최소의 자격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회 : 일본의 건축도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윤병완 : 물론 캐드(CAD)가 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100% I.B.M계의 AUTO-CAD가 아닌 자국 독자 시스템에 의한 캐드 소프트(CAD Soft)가 대부분 사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물의 세분화는 자연히 전문화가 요구되어져서 학교 교수진의 전문화는 학생들이 계열화되고 회사내에서도 부분별로 전문화되어 양성되어 취약부분은 다시 사원을 대학으로 보내짐으로써,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전문화된 산학 협동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사회 : 건축설계의 질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에 비례한다고 본다. 그렇게 볼 때 건축주의 생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건축가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문제해결과 개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석원 : 설계문제도 질적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 현상설계경기가 남발되고 있으며, 국내 현상설계 경기 이전에 우리 건축사들은 너무 서비스 정신이 강하다. 우리 스스로가 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 스스로 Pride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UR에 대비해서라도 건축사 스스로 단결하여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태진 : 설계과정에서 좋은 건축을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시 설계단계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상세도 작성 과정을 최소화시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CAD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현재 미국의 많은 설계사무실에서 제도판이 없어지고 Computer Station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등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있어서 협회가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자료의 정리와 새로이 개발된 사항들은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용역을 주어 얻어진 자료를 회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찬환 : 해외 진출문제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설계분야이다. 따라서 해외설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내적으로 취약분야가 주택설계분야로 주거용 물량이 53%를 차지하며, 표준화된 주택물량 공급은 시정할 때이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설계문화를 창조하는데 전문가 집단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국내 설계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전문가 집단이 자공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야 되리라 보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 본다.

전태진 :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A.I.A라는 조직이 있어 건축가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걸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기구로서 모범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A.I.A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경우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의 3단체가 있어 어떻게 보면 건축계가 분열된 인상을 주기도 하나, 이미 이루어진 3단체가 서로의 성격을 잘 살려서 각기 맡겨진 역할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협력하여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 외국 건축도서와 차이점을 비교해볼 때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

방한영 : 여러가지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공 품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자 및 하청업자가 Shop Drawing을 제작하지 않아 설계와 시공간의 최종 Co-ordination의 과정을 빠뜨리므로 생긴다고 생각되며,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석원 : 외국의 경우, 건축사의 업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는 전부 건축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주로 Client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대다수이다. 국내, 외의 도면비교는 앞으로 이와같은 토론회에서는 직접 도면을 준비해서 자세히 서로 비교하여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사회 : 결론이 바로 표출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제기를 통해 결론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윤병완 : 외국의 경우 일반 주택설계분야는 주택전문회사에서 가정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상해서 만든 상품화된 주택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부분만을 예로 들어보면, 자금과 조직이 잘 갖추어진 주택전문업체에서는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까지 예상가능한 조건에 따라 각종 설계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다. 그 조건들이란 건축주의 성향(개성적, 합리적, 보수적, 절충적)에 따라 외관, 규모별, 진입로별, 평당 공사비별로 개발하여, 한 회사에서만 당장 출력해 볼 수 있는 것만 수백종이 넘는 상황이다.

지금도 우리 도면의 캐드(CAD)화 수준은 낙후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사무소가 전문화되고 연구개발의 여력을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방한영 : 건설회사의 건축설계업 진출은 각 분야마다 경쟁력 제고를 생각해 볼 때 어불성설이며,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와의 업역구별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 특별업무인 단지계획, 업체선정, 설계비, 음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란다.

최찬환 : 계획, 실시단계 등 단계별로 구체화 했으면 한다. 주택같은 경우 건축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문화의 올바른 창달을 위해서 엘리트 집단이 이끌어가고 선도해야 된다고 본다.

윤병완 : 최근 대규모 APT단지의 설계시 마스터 아키텍트(Master Architect)제를 도입하여 마스터 플랜중 특히 경관에 관한 사항과 섹터별로 설계를 진행하는 사무소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원로 건축가에게 별도로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최찬환 : 여러사람이 팀워크를 이루어 협업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협업을 해도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문제다.

또한 설계사무소의 최종 상품은 설계도면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고품질의 설계도면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외형적으로 인력구조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과 기술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사회회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조직의 정화능력을



최 찬 환

건축문화를 창조하는데는 전문가 집단이 앞장서야 하며, 국내설계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는 인식의 전환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배양할 필요가 있다.

전태진 :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면 독립해서 자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Licence를 가지고 조직의 일원이 되어 경험을 쌓은 후에 Associate 또는 Partner가 된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점을 추구해야 되리라 본다.

최찬환 : 건축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능력인정에 대한 자격제도가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우수한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차원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많은 수의 건축사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한영 : 우리나라에는 건축의 인허가과정에 각종 심의가 많이 있는데 제출자가 Presentation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영땡한 심의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가끔 본다. 제출자와 심의자간에 의사교환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찬환 : 소규모 주택건물 등의 설계는 건축사가 등한시하고 있어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교수들도 학생들과 실무교육의 일부로 보아 실무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산학협동이 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을 하여 설계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 : 장시간 진지하게 토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토론내용이 앞으로 건축설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 믿는다.